

“황금연휴 ‘방역 거리’ 2m … 서로에 ‘백신’이 되어주세요”

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최장 6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아이들의 5월 등교 개학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기간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지침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행사 등 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방역 시스템도 총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연휴 기간동안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관광시설 안전수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이번 연휴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절대 안심해선 안되며, 나들이를 하

더라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5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으로 전환하고,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교개학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은 학교 내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 지침을 보완하는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등교 시기와 방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등교개학의 시작 시점은 5월 11일 또는 14일, 18일 등으로 점쳐진다. 고3·중3 등 고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할 가능성이 높다.

정세균 총리도 지난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교육부는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개학

5월 4일 쉬면 오늘부터 어린이날까지 최장 6일 간 연휴
학생들 5월 개학 여부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에 달려
방역당국, 외출 삼가고 ‘코로나19 예방 수칙’ 실천 당부

시기와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개학에) 적어도 일주일의 준비 기간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라며 5월 개학을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5월 등교개학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

이번 황금연휴 동안 지역사회 감염 등 집단감염 사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 등 특정지역만의 노력이 아닌 전 국민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연휴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으로 호소하고 나섰다. 시는 황금연휴 기간 동안 최대한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하게 여행 등을 할 경우엔 별도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또 여행이 끝난 후에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며, 집에서 휴식을 취했는데도 고열이 지속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조기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연휴를 앞두고 여행 등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아프다면 기본적으로 여행을 취소해야 하며, 여행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가족 단위로 자기의 차를 이용하고 되도록이면 혼잡한 여행지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여행 중에도 손을 자주 씻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며 “사람 간 2m 거리를 유지하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황금연휴에 방역이 잘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아이들의 개

학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황금연휴 기간에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9명 늘어나 총 1만761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19일부터 11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9명 중 5명은 해외 유입 사례이며, 나머지 4명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로 대구에서 3명, 경기에서 1명이 나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는 총 24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 2명 늘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복귀 노사정 합의…사업 정상궤도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GGM 내 상생위원회 설치키로

광주 청년의 미래 일자리를 책임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지난 2일 신뢰 붕괴 등을 이유로 사업불참을 선언하고 이탈했던 노동계가 27일 만에 복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박광태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표이사는 29일 오후 4시 30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형 노사 상생의 완성자 공장 성공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했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서에서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 GGM 내 상생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주체별 이행 사항을 담은 3개항 합의를 통해 광주시는 노동정책 전반의 실효성, 정책 수행 역량, 노동 관련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일자리 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단을 우선 꾸리게 되며, 추진단은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고 공식 출범 때까지 재단 취지에 맞는 기능을 수행한다.

GGM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자문기구 ‘상생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되는 상생위원회는 GGM 상생 노사발현 협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노사 관련 문제를 논

의해 대표이사에게 제안한다. 위원회엔 노동계를 대표한 인사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도 2019년 1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투자협약서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해 투자협약서에 첨부된 노사 상생발전협정서를 이행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특히 노동 이사회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GGM 임원들 적정 임금 설정, 시민자문위 구성, 현대차 추천 이사 해촉 등 5대 요구 사항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는 것처럼 광주시, 노동계, GGM, 현대차는 한마음 한뜻으로 광주형 완성자 공장을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사진 가운데)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사진 오른쪽),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표이사가 29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형일자리 완성자공장 성공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날 합의서 체결로 한국노총은 광주형일자리사업에 전격 복귀하게 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022 대입 정시 24% … 수능 비중 높아지고 학종 낮아져

현재 고교 2학년생이 내년에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정시모집 비율이 모두 30% 이상으로 올라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의 ‘2022학

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29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7면〉

학종을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율은 4년제 대학 전체로 봤을 때 75.7%대 24.3%로 나타났다. 선발 인원으로 보면

수시모집이 26만 2378명, 정시모집이 8만 4175명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수시 선발 인원은 4996명 줄고, 정시 선발은 4102명 늘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은 5만 3546명으로 올해보다 5946명 늘어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백용환

이흥재의 세상만사	▶2면
정찬주 다큐 소설 ‘광주 아리랑’	▶9면
KIA 연승경기 삼성에 4-3 승리	▶18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촘촘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